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6년 가을 ▪ 55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굽다리 접시,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일 2016년 9월 5일 **발행인** 김정태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 · 계윤애 · 길문숙 · 문정원 · 서유미 · 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6년 가을 ▪ 55호 Contents

기획/삼국시대 토기	土器	4
	우아하게 위대하게	8
	가야의 곡선미	11
문화칼럼	옛 그림 속의 풍경을 찾아서	14
전시실 산책	활자의 나라	18
회원마당	파사성에 올라	21
	와, 황금이다	24
	꿈을 안고 떠나온 무역선	26
학술상	양단환봉상철기 단상	28
박물관회 소식	박물관 특별강좌 40주년	32
숨은 전시	佳作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土器

긴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인류 최초의 획기적 발명품인 토기는 신석기시대의 지표 유물이다. 대략 1만 2천 년 전쯤 시작된 농업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농경과 함께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수확물을 저장 · 운반하거나 조리하는 도구가 필요해졌고, 진흙에 물을 부어 반죽한 뒤 모양을 빚어 불에 굽는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반죽, 형태 만들기, 말리기, 굽기로 이어지는 토기의 제작 과정은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각각의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있었을 뿐이다. 진흙 반죽은 섭씨 5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흙속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 굽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 단단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토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선사유적지에서 나왔는데, 약 1만 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이 토기의 특징은 그릇을 빚을 때 갈대나 맥문동 같은 식물의 줄기를 함께 넣었다는 점이다. 불에 굽는 과정에서 식물 줄기는 타서 없어지지만, 토기에 흔적을 남긴다. 아직 그릇을 빚는 기술이 부족하여 보조재로 식물 줄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굽는 온도는 섭씨 700도 정도였으며, 밀폐되지 않은 한뎃가마露天窯였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토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는 약 6500년 전에 나타났다.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로는 동해안과 동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되는 덧무늬 토기隆起文土器와 누른무늬 토기押引文土器가 있다. 이들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토기와 땔감을 넣는 가마에서 구웠으며, 온도가 섭씨 700~850도까지 올라갔다. 아직 막음장치는 없었으며 따라서 구울 때 산소가 차단되지 않아 붉은색을 띤다. 3000여 년 전 청동기시대가 되어 나타난 민무늬 토기無文土器도 가마 크기가 커지고 정교해졌지만, 생산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원전 1세기 무렵인 초기 철기시대에는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이 나타났다. 입자가 고운 바탕흙을 사용하고, 가마에 막음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가마 바닥이 수평이었으며, 굽는 온도는 섭씨 850~950도였다. 와질토기 또는 연질토기라 부르는 이 토기는 서기 300년대까지 계속되는 원삼국시대에

널리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삼국시대는 수많은 소국들이 각 지역에서 고대국가로 발돋움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토기에서도 지역별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김해토기라고도 하는 와질토기는 영남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회색이나 회흑색의 토기로 대부분 껴묻거리용으로 쓰였다. 두들긴무늬 토기打捺文土器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토되는데, 구울 때 그릇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망이로 토기 표면을 두들겨 공기를 빼내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본격적인 고대국가가 등장하는 삼국시대가 되면 가마가 산의 구릉으로 옮겨간다. 굴가마登窯의 등장이다. 굴가마는 경사진 터널 모양이며, 섭씨 1100도 이상의 온도를 낼 수 있었다. 바탕흙 역시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달라진다. 서기 3세기 후반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도질토기는 바탕흙에 들어 있는 산화알루미늄과 규산이 높은 온도에서 녹아 토기 표면에 자연유라 불리는 막을 만든 것이다. 또한 삼국시대의 전형적 토기라 할 수 있는 경질토기도 이런 굴가마에서 나왔다. 경질토기는 주로 회청색을 띠는 단단한 그릇으로 아주 실용적이었다.

네 귀 달린 항아리, 서울대학교박물관

고구려

고구려 토기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유물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아차산과 구의동에서 고구려군의 보루가 발굴되면서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서기 전후 무렵에는 연질토기인 적갈색 토기나 검은간토기黑色磨硏土器 등을 주로 만들었으나, 뒤로 가면서 목이 짧고 아가리가 벌어진 회색토기들이 나타난다.

고구려 토기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물레나 돌림판을 이용해 그릇 모양을 만들었다는 점, 둘째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 셋째 중기부터는 황갈색이나 황록색 시유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 넷째 일부 토기에 암문暗文(단단한 도구로 문질러서 무늬 효과를 내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이다.

고구려 특유의 그릇으로는 네 귀 달린 항아리를 들 수 있다. 아가리가 나팔처럼 벌어지고 손잡이가 네 개 달린 토기로 몽촌토성에서도 출토되었다.

세발뚜껑단지, 국립중앙박물관

배 모양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백제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로 도읍이 바뀔 때마다 토기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졌다.
한성기에는 칠기와 비슷한 재질감을 나타내려고 토기 겉면을 문질러 광택을 낸 검은간토기와 세발접시, 곧은목 항아리直口短頸壺, 굽다리 접시高杯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검은간토기는 지배계층에서 많이 사용했고, 세발접시는 백제 고유의 그릇이다.

웅진기에는 한성시대 토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몇 가지 새로운 모양이 나타난다. 세발접시가 계속 만들어지지만, 주로 생활 유적에서 출토되는 한성기와 달리 무덤 유적에서 많이 나온다. 그릇받침은 한성기의 원통 모양에서 장구 모양으로 바뀐다. 한편 마한이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던 영산강 유역의 독널무덤에서는 세발접시가 나오지 않는다. 근초고왕이 마한을 완전히 복속시킨 5세기 후반이 되면 이 지역의 무덤이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고, 세발접시를 비롯한 백제 고유의 그릇이 출토되기 시작한다.

사비기에는 세발접시, 병, 단지, 뚜껑 달린 접시, 굽다리 접시, 손잡이 달린 잔, 그릇받침 등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사용된다. 또 벼루, 등잔, 변기, 굴뚝 같은 특수한 용도의 토기도 많이 만들어진다. 생활유적에서 많이 나오는 회백색의 전 달린 토기와 합은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어, 이 시기에는 토기 생산이 관 주도로 전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삼국 가운데 처음으로 뼈단지를 만들기도 한다.

가야

'철의 왕국'이라 불리는 가야는 토기 생산에서도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인다. 가야의 토기는 크게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로 나눌 수 있다. 굴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운 회청색 경질토기는 주로 껴묻거리로 사용되었다. 실생활 용기로는 적갈색 연질토기를 썼으며, 신라 토기와 비슷한 모양이 많지만 가야 토기가 좀 더 선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또한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가야는 지역에 따라 그릇 모양과 무늬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5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원형을 잃어버리고 결국 신라에 흡수되고 만다.

사람무늬 목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신라

초기에는 가야 토기와 거의 같은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다 5세기가 되면 직선적 모양, 엇갈리게 뚫린 굽구멍 등 신라 토기 고유의 특징이 나타난다. 6세기 후반이 되면 크기가 작아지면서 장식도 간단해진다. 신라 토기는 대부분 흑색, 흑회색, 회청색이며 단단해서 때리면 쇳소리가 나는 경질토기이다.

굽다리 접시가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굽구멍이 일렬로 뚫리고 뚜껑이 있었으나, 5세기 후반이 되면 굽구멍이 없는 것, 한 단만 구멍을 뚫은 것, 엇갈리게 뚫은 것 등 다양한 모양으로 분화한다. 항아리도 이 시기에 목 긴 항아리, 목 짧은 항아리, 굽 있는 항아리 등으로 다양해진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이 시기 신라 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목 긴 항아리와 굽다리 접시 가운데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각종 토우를 장식한 것들도 있다.

또한 무덤 속이나 그 주변에 묻기 위해 다양한 상형토기를 만들었다. 말, 배, 수레, 오리, 상서로운 동물 등 죽은 이가 안식을 누리고 사후세계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염원을 담은 것들이다.

길문숙 회원

토우가 장식된 굽다리 접시, 국립중앙박물관

우아하게 위대하게

그녀는 백제의 귀부인이다. 1995년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후 현대 첨단기술에 의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160cm 넘는 키에, 지금 여기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얼굴인 양 친숙한 생김새이다. 많아야 30대 정도라는 그녀는 천두술의 흔적이 남아 있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왜 고대 멕시코나 이집트 등지에서 주로 두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졌던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뇌수술을 받았을까? 고대 한국 의술의 발달된 수준에 놀라는 한편 옛 여인의 일상은 어떠했는지 그려보게 된다. 660년 사비성 함락이란 기록을 끝으로 사라져버린 비운의 왕조, 백제의 이미지가 겹쳐져서일까. 그녀가 겪은 삶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으리라 싶다.

하루가 시작된다. 사비는 이 땅의 이름이자 새벽이란 뜻을 지닌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어린 아들을 일으켜 오줌을 누인다. 중국 청자를 우리식으로 변모시킨 호자를 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난다. 무서운 호랑이가 공손하게 앉아서 입을 활짝 벌려 아이의 아침을 개운하게 열어준다.

물을 길러 우물로 향한다. 목에 끈을 둘러 묶은 나팔꽃처럼 입이 벌어진 항아리가 물에 닿을 때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두레박으로 쓰는 회청색 경질토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썼다는 적갈색 연질토기보다 얇고 단단해서 오래 쓸 수 있어 좋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떨어트려도 깨지지 않고 물이 전혀 새지 않으며 색상이 다양했으면 더 좋을 터인데.

호자, 국립부여박물관

얼마 전 구경한 거대한 규모의 가마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내고 있던 이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그릇과 함께 건축 부재인 기와도 산처럼 쌓여 있어 장관이었다. 원찰을 짓기 위해 외지에서 새로운 기술자 집단이 이주했고 근방의 남자들이 모두 동원되었다고 한다. 산등성이에 뱀처럼 기다랗게 자리한 현재의 가마(등요)가 생겨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다니 기술의 발달이 놀랍기만 하다. 대규모 사업이 끝나면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 지도를 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한여름에 가마의 열기가 전해져 더 뜨겁게 느껴지지만 고을에 불어온 활기가 반갑기만 하다.

'아차, 이럴 때가 아닌데.'

한밤중에 지낼 제사 준비에 마음이 바빠진다.

근래에는 주로 뚜껑 있는 굽다리 사발에 밥과 국을 담는다. 사비 천도 이후 중국 청자나 금속제 사발을 본뜬 반상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는데 한동안 인기가 지속될 모양이다. 물솥 위에 올려놓고 불을 때면 바닥의 구멍으로 증기가 올라와 음식을 익히는 시루에 떡을 안친다. 계란 모양 토기長卵形土器 대신 이제는 부뚜막에 올릴 때 고정시키기 편하게 날개 같은 전을 두른 토기를 물솥으로 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장만하니 일손도 아궁이도 모자란다. 마당에 이동식 부뚜막을 세우고 국을 끓일 요량으로 깊은바리深鉢形土器를 올린다.

저장용 구덩이에 놓인 항아리에서 여러 식재료를 꺼낸다. 곡식 종자를 담기 위해 항아리보다 훨씬 큰 옹을 몇 개 장만하였더니 창고가 그득하다. 귀한 화폐나 고철도 항아리에 담아 둘 수 있으니 그릇은 요모조모 참 쓸모가 많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불을 밝힌다. 향내가 은은한 들기름 대신 사슴기름을 토기 등잔에 붓고 심지에 불을 당긴다. 제사의 축문을 쓰기 위해 아이에게 토제 벼루에 먹을 갈라고 이른다. 형태가 다양한 벼루에 요즘은 도철무늬뿐만 아니라 연꽃무늬가 많이 새겨진다. 무늬가 달라지고 연통 꼭대기와 벼루 뚜껑에는 보주 모양 장식이 등장하고, 어느새 생활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든 불교의 영향을 실감하게 된다. 불교가 전래될 때 따라 들어온 새로운 장법인 화장묘의 경우에는

전 달린 토기와 합, 국립중앙박물관

검은간토기, 고려대학교박물관

세발토기, 한성백제박물관

주로 뚜껑 달린 곧은목 항아리有蓋直口壺나 합 등을 뼈단지骨壺로 쓴다고 한다. 원삼국시대 영산강 유역에는 대형 옹관묘가 쓰였다던데, 토기에 안장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삶의 마지막 풍경은 시대와 종교 불문이구나 싶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과 더불어 변해 온 것은 무엇이 있으려나, 불현듯 나라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부족 연맹체인 마한의 한 소국이 한반도의 중심인 한성에서 대형봉토를 가진 고분과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의 성곽을 쌓을 만큼 번성한 국가로 성장하였는데 이후 많은 것을 잃고 떠나야만 했다. 웅진을 거쳐 사비를 수도로 삼고 새롭게 정치적, 문화적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조국, 백제. 절치부심, 기사회생의 사자성어가 연이어 떠오르고 백제의 지난 역사와 우리네 굴곡진 인생역정이 유비된다.

연통 모양 토기, 국립부여박물관

한밤중 달빛이 교교해지자 제를 시작한다. 위세품인 검은간토기黑色磨硏土器를 제의용으로 꺼내놓는다. 표면에 광물질을 바르고 문질러서 칠기의 독특한 재질감을 살려낸 토기로 어두운 밤에도 윤기 나는 검정이 품격 있어 보인다. 세발토기에도 공양물을 정성스레 올린다. 백제의 세발토기는 북쪽의 고구려나 동쪽의 신라와 가야에는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접시나 대접에 굽을 붙인 굽다리 잔이나 그릇받침도 삼국이 모두 다르다는 말이 기억난다.

반상문화가 가장 발달한 고구려는 바닥이 납작한 토기로 굽다리 잔이나 그릇받침이 없고, 반상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신라 · 가야는 토기 바닥이 둥글고 기하학적인 뚫음무늬가 있는 굽다리는 긴 편이라 한다. 장식이 없는 짧은 굽다리의 잔이 보여주듯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으니 삼국의 지정학적 관계가 그릇 모양에도 그대로 투영되나 보다. 그나저나 고구려의 남침이나 신라의 나제동맹 파기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데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다시 우리의 국경을 노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왕조의 무궁한 안녕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어느새 다시 사비가 찾아온다.

삼국 중 문헌 기록이 가장 적은 백제는 유물을 통해 독자적인 미학을 드러낸다. 지역별, 시대별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백제 토기는 국제성, 개방성을 지니며 소박하면서도 세련되게 기능과 미를 조화시켰다고 평가받는다. 1400여 년 전, 현대의 우리와 다름없이 웃고 울며 삶을 꾸려간 백제의 여인은 후손들의 감상이 만족스러울까. 그녀의 우아한 미소는 위대한 백제의 영광을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려나.

문정원 회원

가야의 곡선미

가야실에 전시된 가야 토기 앞에 이르면 특이한 그릇 모양에 호기심이 확 일어난다. 독특하면서도 다부진 다리로 접시를 이고 있는 굽다리 접시, 풍만한 곡선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긴 목 항아리 등 익숙지 않은 모양의 그릇들 때문이다. 특히 굽다리라는 게 낯설다. 완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원통 모양의 그릇받침에서는 태고의 원초적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가야 토기는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 않아 담백하다. 흙을 구워 낸 무채색은 절제된 고요함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가야 토기의 낯선 매력에 푹 빠지게 한다.

가야는 원삼국시대의 토기 제작 기술에 더해 고속 회전물레, 굴가마 등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 아주 단단한 회청색의 경질토기를 만들었다. 이 토기는 주로 껴묻거리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생활 용기인 적갈색의 연질토기는 원삼국시대부터 제작되던 것으로, 민무늬 토기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가야 토기는 신라 토기와 비슷하나 보다 곡선적이다. 이단 굽구멍이 뚫린 굽다리 접시, 물결무늬가 새겨진 긴 목 항아리, 다양한 높낮이와 형태의 그릇받침 등이 대표적이다.

가야의 각 소국들은 변한으로부터 시작하였기에 공통의 문화적 기반 위에 서로 비슷한 토기 제작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그릇 모양이나 무늬 등 세부적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경남 고성의 소가야 양식으로 구분한다.

가야실 전경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국이었던 금관가야의 토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결무늬가 새겨진 화로 모양 그릇받침과 아가리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굽다리 접시가 주를 이룬다. 바닥이 둥근 항아리 종류의 그릇을 받치기 위한 화로 모양 그릇받침은 몸체 양쪽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표면의 다양한 무늬가 특징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화로 모양 그릇받침은 넓게 벌어진 아가리 부분에 한 줄의 돋을띠를 두르고 삼각형의 기하학적 무늬를 규칙적으로 돌렸다. 간결하면서도 산뜻하지만 다소 경직된 느낌이다. 하지만 몸체에 두 줄의 물결무늬를 넣어 굳은 느낌을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풀어낸다. 역동적인 물결무늬가 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야인의 숨결이 고대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한다. 몸통과 다리가 잘록하게 꺾였다가 아래로 내려가며 넓은 원을 그려 안정적이다. 굽다리에 삼각형무늬를 배열하다 삼각형의 굽구멍을 뚫어 변화를 준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아쉽게도 이 화로 모양 그릇받침은 5세기를 전후해서 바리 모양 그릇받침으로 대체되며 사라진다.

화로 모양 그릇받침, 경성대학교박물관

대가야 토기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풍만함이 주는 안정감이 특징이다. 접시가 납작하고 굽다리에 좁고 긴 사각형의 굽구멍이 뚫린 굽다리 접시, 목이 긴 항아리, 몸체에 긴 띠를 세로로 장식한 원통 모양 그릇받침 등이 있다.

긴 목 항아리에는 대가야 토기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곡물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무덤의 껴묻거리로 많이 나온다. 둥근 몸통에 긴 목이 붙어 있으며 아가리는 바깥으로 벌어졌다. 대체적으로 그 위에 단추나 유두 모양의 꼭지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이 긴 목 항아리의 포인트는 목 부분의 물결무늬다. 한두 줄의 돋을띠를 둘러 삼단으로 나누었으며 물결무늬를 촘촘하게 돌려 새겼다. 고대로부터 밀려오는 무수한 물결의 작은 속삭임에 마음을 기울여 본다. 기다란 목이 부드럽게 좁아져 내려오며 몸체 부분과 S자형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곡선미와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꼭 잘록한 허리와 팡파짐한 엉덩이를 가진 여인네의 뒷모습이다. 대가야 아낙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물결처럼 흐르는 곡선미에 마음이 오래 머문다.

불꽃 모양 굽구멍 굽다리 접시, 경남고고학연구소

아라가야의 토기에서는 불꽃 모양의 굽구멍이 눈에 띈다. 불꽃 모양의 굽구멍이 뚫려 있는 토기는 '아라가야식 토기'로 불릴 만큼 독창적이어서 아라가야의 영역과 대외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工자형 굽다리 접시와 불꽃 모양의 굽구멍이

뚫린 굽다리 접시의 단아한 선에 매료된다. 기교는 없지만 간결하고 세련된 멋이 있다. 가야 토기의 특징인 곡선미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소가야의 토기는 다른 가야 지역의 토기에 비해 소박하다. 납작한 몸체에 가늘고 긴 네모 모양의 굽구멍이 뚫린 굽다리 접시와 아가리 끝이 수평을 이루며 퍼진 항아리, 아랫부분이 나발 모양인 그릇받침 등이 있다. 다양한 토기 중 삼각형 모양의 굽구멍이 일렬로 늘어선 그릇받침이 눈에 들어온다. 다른 가야의 그릇받침과 사뭇 다르다. 경남 고성의 내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소가야 그릇받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삼각형 굽구멍의 토기는 짧은 시기 동안에만 제작되었다. 5세기 초 아라가야에서 먼저 제작하였지만 5세기 중반부터는 소가야에서 크게 유행한다. 장방형 굽구멍 토기에 비해 그 수나 분포 범위가 넓지 않다. 금관가야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그릇받침은 원통형이지만, 소가야의 그릇받침은 깔대기를 엎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게 퍼진 모양이다. 몸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소가야 특유의 삼각형 굽구멍이 한 줄로 시원스레 배치되었다. 대가야의 그릇받침이 중후하고 우직한 느낌의 남성적인 모습이라면, 소가야의 그릇받침은 날렵하고 세련된 여성스러운 모습이다.

긴 목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이처럼 가야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진 토기가 제작되었다. 하지만 5세기 후반 신라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가야 토기는 점차 독자적인 원형을 잃어버리고 신라 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다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 양식으로 변화되어 짧은 굽다리 접시, 꺾인 목 항아리 등과 같은 형태로 바뀐다. 562년 대가야의 멸망으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야 토기는 신라 토기와 어우러져 또 다른 미를 만들어 낸다.

그릇받침,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토기는 수수하다. 애써 꾸미지 않아 오히려 유려한 곡선미를 더 돋보이게 한다. 차분하니 단아한 곡선으로, 때로는 터질 듯한 풍만한 곡선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굽다리와 굽구멍은 가야 토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꽃 모양의 굽구멍을 보며 신선한 발견의 기쁨까지 누린다. 깊고 중후한 기운을 뿜어내는 대가야의 원통형 그릇받침에서는 가야인의 듬직한 심성을 느낀다.
불과 흙으로 빚어낸 가야 토기는 무수한 시간을 품고서 가야의 혼을 오늘에 전한다.

계윤애 회원

옛 그림 속의 풍경을 찾아서

정선, 〈공암층탑〉, 《경교명승첩》 중, 간송미술관

많은 사람들이 고적답사의 대상지로 오래된 유적이나 고색창연한 건축물을 찾는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뭔가 색다른 답사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옛 그림 속의 현장을 권하고 싶다. 실경을 그린 산수화 속의 경물은 대부분 현재의 위치가 파악된다. 특히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에는 약 250년 전의 경관들이 현장감 넘치는 묘사로 잘 간직되어 있다. 그중 당시의 이름난 명소들만 골라 그린 진경산수화 속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은 그림의 안팎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진경산수화의 현장

진경산수화를 감상하며 그림 속의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화가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본다. 그리고 바라보고 느낀 바에 자신의 감성을 실어 구상한다. 이때 화가가 느낀 감성의 세계를 감상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감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화가의 감성을 교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감성을 이끌어낸 그림 속의 현장이 아닐까? 한 점의 명작 앞에서 우리는 감상자와

그림의 관계를 넘어 화가와 그림 사이를 들여다봐야 한다.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영감과 감흥을 느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림 속의 공간을 확인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경산수화를 그린 화가는 경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약간의 재구성을 거쳐 완성한다. 그러한 재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그림 속의 현장이다.

진경산수화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그림이 아니다. 그 시절, 그 공간, 그리고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속의 명소가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진경산수화에 적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한강 서편의 명소를 그린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작품 한 점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강변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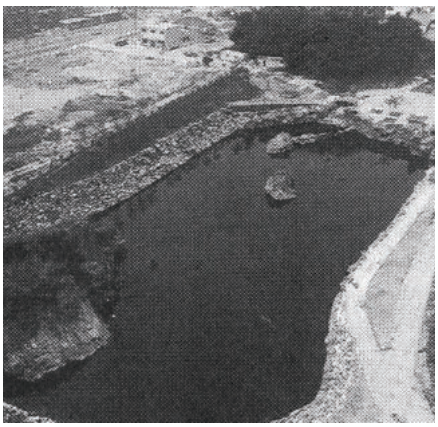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를 선도한 정선이 한강 인근을 그린 진경산수화는 1740년 작인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과 《양천팔경첩陽川八景帖》에 수록되어 전한다. 《경교명승첩》은 정선이 양천현령으로 부임한 뒤에 그린 것으로 19점이 들어가 있다. 그중에서도 〈공암층탑孔岩層塔〉, 〈소악후월小岳候月〉 등을 비롯한 3점이 조선말기 양천현 일대의 명소를 그린 것이다. 《양천팔경첩》에도 〈이수정二水亭〉, 〈소요정逍遙亭〉 등 한강 서쪽 유역의 명승들이 들어 있다. 이 두 화첩의 그림은 정선의 나이 60대 후반에 그린 것인데, 노년기 필치답지 않게 밝은 색감과 정치한 표현, 그리고 충만한 공간구성과 현장감이 잘 드러나 있다.

한강 서편, 옛 양천현이 있던 곳의 옛 지도를 한번 살펴보자. 1911년에 제작된 지도상의 한강은 개발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기에 강폭이 매우 좁다. 특히 강변과 언덕, 모래사장 등이 들쭉날쭉하다. 지금의 한강변에는 숲을 이룬 아파트 단지와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가 들어서 있다. 자연미 넘치는 풍광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보다 과거가 훨씬 더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한성지도, 1911년

허가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내 광주바위


구암공원 조성시의 광주바위

이곳의 경관 가운데 자세히 살펴볼 한 점은 〈공암층탑〉이라는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강변의 언덕에 탑산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절벽의 바위면이 드러나 있다. 강 쪽으로는 뾰족한 촛대바위 같은 바위 두 개가 물 위로 솟아 있다. 필자는 이 바위의 이름을 임시로 '촛대바위'라 지었다. 이 바위를 보는 순간, "아! 이런 곳이 지금 이대로 남았다면 분명 서울의 명소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쳐갔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바위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탑산 아래에는 동굴이 뚫린 바위가 있는데 이를 '허가바위'라고 부른다. 양천허씨의 시조인 허선문許宣文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설화가 전한다. 또한 인근에는 나루터인 공암나루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림에 등장한 탑산의 자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공암층탑〉과 실경

최근 30년 이내에 한강 인근에서 〈공암층탑〉에 그려진 바위를 구경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바위의 존재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강산이 수십 번이나 바뀐 300년 전의 풍경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체념 때문일까?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의 바위는 언젠가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언제일까? 필자는 이 바위의 존재가 몹시 궁금했고, 결국 이 그림을 들고 현장을 찾아 나섰다. 오래전 일이지만, 수소문하여 찾기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 속의 이 바위는 강서구 구암공원의 연못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변의 바위를 이 연못 안으로 옮긴 것일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사실 바위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것을 둘러싼 지형이 바뀐 것이다. 공암층탑이 있던 강변에는 1980년대 중반 올림픽대로가 놓이면서 도로 안쪽의 강변 일대를 흙으로 매립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와 공원과 학교 등이 들어섰다.

이 때문에 한 쌍을 이룬 촛대바위는 땅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공사의 기본계획에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 강변을 매립할 때 촛대바위를 없애거나 땅속에 묻지 않고 연못을 만들어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기본안이었다. 촛대바위 인근의 공원화가 결정되면서 그림 속의 바위는 구암공원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남게 된 것이다. 주변 풍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뀌었지만, 바위는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다.

지금 구암공원에 있는 바위의 원래 모습은 정선의 그림 〈공암층탑〉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연못 옆의 안내판에는 이 바위의 유래에 관한 설명문이 적혀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조선후기 이 바위가 있던 양천현으로 지금의 잠실 지역에 해당하는 광주현의 현감이 찾아왔다. 그리고 양천현감에게 바위 이야기를 건넸다. 이 바위는 원래 광주현 영내에 있던 것인데, 오래전 큰 홍수에 떠내려와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고장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순진한 양천현감은 그 말에 듣고서 처음 얼마간 세금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보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이 달라고 해서 가져온 바위도 아닌데 세금까지 내다니. 양천현감은 광주현감에게 서신을 띄웠다. 이 바위는 우리 고을에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하며, 세금도 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광주현감은 아무 답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바위를 그때부터 '광주바위'로 불렀다는 것이다. 필자가 촛대바위로 불렀던 이 바위의 원래 이름은 '광주바위'였다. 사람들은 광주바위를 알지만, 이 바위의 원래 모습이 〈공암층탑〉에 그려져 있음을 거의 모르고 있다. 또한 〈공암층탑〉의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화면 속의 촛대바위가 구암공원에 광주바위로 남아 있음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

아트보드판, 진경산수화로 그려진 백악산의 명소, 2013년 설치

또 다른 진경의 현장

정선의 마음을 움직여 붓을 들게 한 것은 이곳 광주바위와 탑산 인근의 풍광이 주는 매력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이 그림 속의 경물에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했다. 25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옛 모습을 지켜온 광주바위가 고맙게 느껴진다.

정선의 그림을 비롯한 진경산수화의 공간을 답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으로는 인왕산 아래의 장동팔경壯洞八景이 있다. 산자락을 끼고 있고, 유명 인물들의 집터가 있던 곳이라 경관의 아름다움 만큼이나 인문적인 의미도 두터운 매력적인 공간이다. 특히 서촌西村이라 불리는 이곳은 정선이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곳으로 인왕산과 백악산 자락의 여러 명소를 보듬고 있다. 물론 옛 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있지만, 사라지거나 일부만 보존된 곳도 있다. 수년 전 서울시 문화재과에서는 진경산수화 속의 현장에 그림과 설명을 붙인 아트보드판을 설치하여 새로운 답사코스를 만들었다. 낱장의 화폭에 형상화된 옛 명소들은 오랜 세월 속에 잊혀지고 사라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림 속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진경산수화는 현재적 가치와 공존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책임연구원

활자의 나라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대수롭지 않은 걸로 재미있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책에서 글자가 누워 있거나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선 결코 재미있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식자공이 손으로 하나하나 활자를 배열하던 시절이라 가능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전자출판으로 전환되면서 아무리 심각한 오타가 나더라도 그런 실수는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손으로 활자를 하나하나 박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활자로 인쇄된 마지막 책 제목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써왔던 활자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나니 허탈함이 느껴집니다.

'활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전시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나는 여태까지 활자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함께 생각해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니 기억 저편에서 '계미자'라는 단어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또 갑……뭐라는 활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그 이름도 떠올랐습니다. '갑인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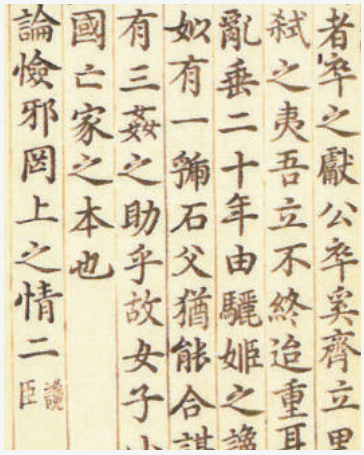
그렇게 찾게 된 전시실은 예상대로 수수한 곳이었습니다. 시커먼 활자들이 주된 전시 유물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활자가 아니라 낯설게 생긴 커다란 서랍장들이었습니다. 아주 얕은 서랍들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밑의 두 줄 정도는 서랍의 높이가 높고 격자로 칸을 나눠놓았습니다. 그것들은 활자를 분류하여 보관하였던 활자장活字欌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하는 활자의 무게가 얼추 100kg은 되었다고 하니 그 무게를 감당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드는 소목장의 작업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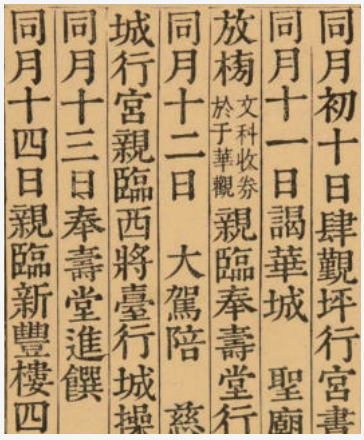
활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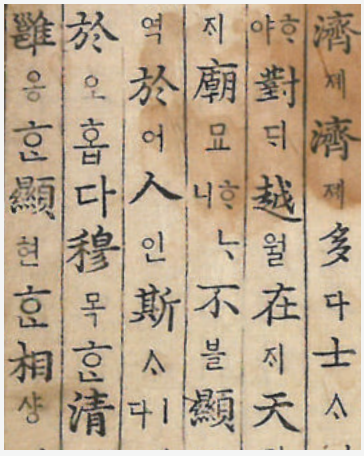
활자장에 보관된 활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글자를 찾아다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수장守藏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통은 글을 아는 공노비가 맡았다고 하는데, 제아무리 글을 안다 해도 공노비가 그 어려운 한자를 신속하게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만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자 자전의 부수, 획수와는 무관하게 글자 모양에 바탕을 둔 분류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있는 깊은 서랍은 '정간판井間板'이라고 부르는데, 자주 쓰는 글자, 즉 많이 제작한 활자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계미자와 갑인자의 정체는 활자들을 살펴보면서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계미자癸未字는 태종 때 제작한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이고, 갑인자甲寅字는 세종 때 처음 제작한 이후로 정조 때까지 여섯 번이나 더 제작한 조선의 대표 활자였습니다. 갑인자로 인쇄된 책의 서체가 매우 유려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종 역시 이 서체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 갑인자로 제일 처음 간행한 책은 제왕의 정치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대학연의大學衍義』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갑인자는 경연과 서연 등에서 사용할 책을 찍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히 글자만 찍는 활자가 아니라 유교통치와 문치주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위의 두 활자의 이름과 함께 하나 더 기억해야 할 활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리자整理字입니다. 그는 세손 시절부터 활자의 주조를 주관한 이래, 즉위 후에도 여러 차례 활자를 만들었고 정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활자까지 들여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활자를 가장 많이 제작한 군주였고 정리자는 그의 활자 제작의 정점에 있는 활자였습니다. 실은 이것은 정조의 정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대학연의』, 갑인자


『원행을묘정리의궤』, 정리자


『시경언해』, 무신자 · 한글 금속활자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를 기록하기 위한 활자였습니다. 정조는 이 활자가 인쇄가 간편하고 빠르며,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중국의 활자보다 낫다고 자부심을 나타냈지만 『강희자전康熙字典』을 참고해 만든 각진 글씨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독성 면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체는 요즘 사용하는 인쇄체 활자에 근접한 글자 같습니다. 정리자는 계속 사용되어 대한제국 시대에도 관보 등을 찍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록의 나라' 조선이 '활자의 나라'인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선의 왕들은 활자를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왕실의 특권이었던 금속활자를 민간에서도 제작하여 역으로 왕실로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목활자와 민간에서 제작한 활자까지 감안하면 이 나라는 실로 엄청난 양의 활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자뿐만 아니라 언해본이나 임금의 윤음을 인쇄하기 위해 한글로 된 활자도 제작했습니다. 백성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든 그 군주가 활자 제작에도 열심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먼 나라 옛날이야기이지만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이유로 화형 당한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가 통치이념이었던 시대에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읽게 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보통 전근대시대 위정자들이란 그런 것이지요. 그에 비해 문치주의를 표방하며 통치이념이 적힌 책들을 많이 배포하려고 했던 조선은 좀 유별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보면서 활자를 한자로 쓰면 活字, 영어로 쓰면 movable type, 즉 살아 움직이는 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었다가 털고 다른 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조선의 활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나니 그 말이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활자의 나라에서 그것들은 아주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서유미 회원

파사성에 올라

양평군 개군면으로 이사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주변을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았다. 개군이라는 촌스러운 지명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한국지명유래집을 살펴보았다.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민, 관, 군이 힘을 합해 왜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마을 산을 군사 군자를 넣어 개군산介軍山이라 칭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로하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래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갔다. 이곳을 포함한 여주 지역이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접전지역이었다고 한다.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아들인 곳이라 하여 줄여서 개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후자가 더 마음에 들었다. 어르신들은 마을에 인접한 파사산을 가리키며 거기 올라보면 자신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 거란다. 그들의 조상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구전으로 내려온 말이라고 한다.

여주 파사성

파사성婆娑城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의 경계를 이루는 파사성은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사산 입구에 파사성 설명 입간판이 있다. 마침 2016년 5월 말에 파사성 보수정비공사가 끝나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60미터의 거리라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산성을 오르는 길은 꽤 가파른 오르막이다. 개군면 쪽에서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지만, 주차장 시설도 천서리 쪽에 있어서 이쪽을 택했다.

파사성은 해발 230.5미터의 파사산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작은 계곡을 에워싼 부정삼각형에 가까운 석축산성이다. 대체로 북동벽 방향이 높고, 남서벽 방향이 낮은 형세로 되어 있다. 80년에서 112년까지 신라를 다스렸던 파사왕이 축성했다 하여 파사성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삼국통일 전쟁기에 이천 방면에서 동진하는 백제와 양평 방면에서 남하하는 고구려, 그리고 원주 · 충주 방면에서 북상하는 신라 세력이 만나는 지점으로 한강 유역 확보를 위한 각축장이었다. 그래서 개선장군을 줄여서 개군면이 되었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세 갈래 진격로 가운데 중로中路에 위치한 길목으로 한강변을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류성룡은 파사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한다. 서산대사의 제자인 승려 의엄 휘하의 승군이 건설을 담당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사성의 비중은 감소했고, 보수나 개축이 없어서 퇴락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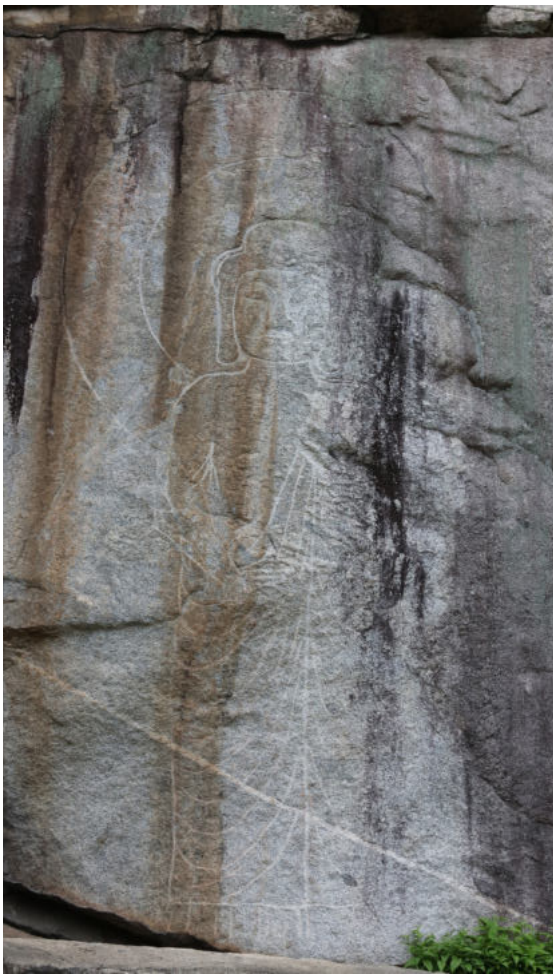
산성 둘레가 약 936.5미터에 이르고, 성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지만 현재 문은 모두 사라지고 동문과 남문이 있던 자리만 있다. 동문지 안쪽에 각종 부대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남문지에는 조선시대의 고주형高柱形 초석 2기가 남아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동문지 성벽 보수에 이어 2009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4차에 걸쳐 발굴조사와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성 내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일신라 전후의 토기와 도기, 자기,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삼국시대의 돌과 조선시대의 돌, 현대의 돌이 섞여 쌓인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쓰다듬어본다. 이건 아마도 삼국시대 돌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아직 남문지 쪽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상에서 동문지로 내려가는 길은 발굴조사 중이라 막혀 있다.

2011년 5차 발굴 조사 때, 외벽 상부에서 약 1미터 아래에 장방형長方形의 석축구조인 치성雉城 3개소가 확인됐다. 조선시대에 신라의 곡성曲城을 개축해 그 윗부분에 축조했는데,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였다고 한다. 이것은 류성룡이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포루砲樓 자리였다. 우리나라 포루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사성 포루가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사성 정상에 오르니 남한강을 끼고 여주 이포보와 개군면이 부채에 그린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고려 말 이색과 조선 중기의 류성룡이 파사성 위에서 경치를 보며 읊은 시가 남아 있다. 저절로 시가 나올 만한 경치다. 북으로는 개군산, 추읍산, 칠보산, 용문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남으로는 원통산, 싸리산, 북성산, 동으로는 우두산, 고래산, 강 건너 서쪽으로 태봉산, 대렴봉까지 첩첩이 시야에 들어온다.

파사성 정상에서 나무계단을 내려가면 거대한 암벽이 있다. 5.5미터 높이의 불상이 실선으로 새겨져 있는데,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이다. 두 개의 원으로 표현된 머리광배를 갖추고 있는 불상은 연꽃무늬가 새겨진 대좌 위에 서 있다. 사각형의 얼굴에 귀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팔꿈치가 각이 진 상태로 가슴 부분에 놓여 있는데, 왼손은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어 있다. 선으로 불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다고 한다.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가까운 곳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유적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살았다. 개군면이라는 다소 촌스럽게 느껴지는 지명의 유래를 파고들다가, 신라 때 유적을 만났으니 가슴이 벅차다. 말을 타고 늠름하게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김성금 회원

와, 황금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특별전시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빨려 들게 하는 곳이 틸리야 테페, 우즈베키어로 '황금언덕'이라 불리는 곳이다. 와, 황금이다. 약간은 들뜬 시선으로 소리 없는 경탄을 질러 보시라. 고대 유라시아의 찬란한 황금문화가 당신의 일리 있는 외침을 허락하는 순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자라고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전시관을 황금으로 장식한 그리스 신들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워 보시라.

1978년 배화교 신전에서 발굴한 황금 원판을 보게 되리라.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여섯 개의 무덤들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틸리야 테페 무덤에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에서 번성했던 그리스-박트리아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당신은 이제 여섯 개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4호 무덤은 남성이다. 이 남성의 무덤을 에워싸고 있는 다섯 개의 무덤 주인은 각기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세공한 장신구를 착용한 채로 발견되었다.

황금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무덤 속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당신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다. 각기 착용하고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부장품의 종류에 따라 그들의 신분 또는 사회적 위계를 엿볼 수 있다.

유목 문화적 요소를 대표하는 화살과 단검, 칼집, 동물 도상 등을 장식한 4호 무덤의 주인은 박트리아 유목민의 왕족 혹은 사제로 해석한다. 이 남성은 커다란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 모양이 꽂혀 있는 머리 장식을 쓰고 있어 수장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당신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는 6호 무덤 금관으로 발길을 옮겨보시라. 6호 무덤의 금관은 무덤 주인공의 머리에 씌워진 채로 발견되었다. 다섯 개의 나무모양 세움장식이 관테에 부착된 형태의 금관이다. 가운데 세움장식을 제외한 4개의 나무모형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라. 하늘을 향해 찌르듯이 서 있는 나무의 우듬지 쪽에 서로 부리를 맞댄 새 두 마리가 대칭적으로

부조되어 있던 그리스의 신들이 꿈틀대며 통역해준 신화를 구슬처럼 꿰어 보니, 어떠한가. 2천년의 역사를 지켜 온 파수꾼, 황금문화. 황금 앞에서 은근 초라했던 어깨를 곧추 세우고, 황금빛처럼 폼생폼사를 제대로 잡고 보니,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그 기분 그대로, 오늘 밤엔 '황금 언덕'에 있는 황금 원판의 6호 무덤 금관을 써보는 꿈을 꾸어 보시라. 속물이면 어때. 황금은 그냥 좋으니까.

강현자 회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상상의 동물 그리핀이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그리핀이 통역하는 노래를 들어보시라.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생명의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로 영원을 상징한다고 읊고 있다.

중앙의 세움장식은 꽃 모양의 로제트와 둥근 하부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로제트는 태양을 상징하는 모티프다.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기 위해 내공을 쌓는다. 그 태양의 내력을 캐기 위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만으로 그 금관을 이해하기란 무리겠지만. 2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박트리아의 주인공이 깨어나는 순간을 그냥 즐겨보시라.
금관 옆에 서서 전시실 바닥을 발로 두드려 보는 것 또한 잊지 마시라. 금관에 달려 있는 달개와 꽃잎들이 팔랑거리며 반짝일 것이다. 잠깐, 금관에 달려 있는 태양이 빛을 뿜어댈지도 모르니, 찬란한 빛 화살을 마음껏 맞아 보시길.
틸리야 테페 무덤에 매납된 호화로운 부장품들은 유라시아 대륙 중앙 초원 지대를 무대로 생존해 온 유목민들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유물들이다. 고대인들이 수런수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라. 단지, '와, 황금이다.'라는 속물적인 경탄을 외치기엔 그들이 누렸을 황금문화의 가치가 경이롭지 않은가.

꿈을 안고 떠나온 무역선

청자 여인상 촛대, 국립중앙박물관

1976년 뉴스에서 연일 신안 바다 유물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어렴풋한 기억에 서해 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청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굴을 위해 어두운 밤 잠수를 한다는 내용과 나중에는 우리나라 것이 아닌 중국의 도자기라는 내용까지. 그 당시 내 나이가 10대였으니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이나 궁금증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이후 시간을 뛰어넘어 박물관의 신안해저문화재실에서 그때의 기억과 함께 신안의 유물을 마주 대하고 있다. 신안의 위치부터 찾아보았다. 좌표상 북위 35도 1분 15초 동경 126도 5분 6초 지점. 수심은 20m 이상이고 해류가 탁류를 이루면서 급하게 흐르므로 시계視界가 없는 해저라서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할 수 있었나 보다. 수많은 유물을 안고 내려앉은 목선은 작은 섬들과 해안선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해협 아래 뻘 속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듯 숨을 죽이고 유수한 이야기를 안고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곳이 뻘이라서 유물들이 변형이 없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또한 행운이 아닐까 생각한다. 600년이 넘도록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물들은 그때의 시대상과 그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선원들이 사용했던 식기들과 여러 곡식들, 지루한 바닷길을 견디기 위해 즐기던 바둑돌 등, 그 당시 배 안에서의 생활이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간다. 유물은 이렇게 우리를 그 당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무한의 힘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많은 유물 중에 나는 여인의 모습을 한 도자기 인형 앞에 발걸음을 멈춘다. '청자 여인상 촛대'라고 적혀 있었다. 얼굴과 목, 손 부분은 유약을 입히지 않았는데 표면이 매끄러운 피부와 같은 질감을 나타낸다. 숨을 불어 넣으면 금방이라도 기지개를 펴고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이다. 마치 스페인의 야드로 도자기 인형을 보는 듯했다. 세계적 명품이라는 야드로 인형은 195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중국은 1세기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했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토록 섬세한 인형을 만들었을 장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백지흑화 파도 꽃무늬 긴 목병, 국립중앙박물관

내 눈을 호사스럽게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은 '청자 물고기 용 장식 꽃병'이다. 이 꽃병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명품 도자기라고 한다. 옥색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현란한 문양의 조각. 그곳에 담길 꽃은 어느 꽃보다도 기품 있고 아름다웠으리라. 색의 대비랄까. 그 옆에 놓여 있는 '백지흑화 파도 꽃무늬 긴 목병'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끌어안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듯하다. 회 바탕에 철분 재료로 문양을 그리는 기법으로 꽃무늬가 마치 살아 있는 듯 아름답고 전면의 넝쿨무늬 또한 생동감을 준다.

그 외에도 교역에 사용되었던 청동 추에는 추의 제작 연도를 의미하는 '경신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1320년으로 해석한다. 배 밑바닥에서는 동남아가 주산지인 자단목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자단목은 잘 썩지 않아 건축이나 불상, 장신구 등의 조각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오늘은 마치 호사스러운 보물선에 올라 항해를 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낭만적이고 멋과 풍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다.

박물관은 그래서 또 오고 싶은 곳이다. 내가 있고, 나 이전의 사람들이 향기를 남기고 간 곳. 그곳에서 그들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오늘 나는 600여 년 전 꿈을 안고 보물을 가득 싣고 떠나온 무역선에서 그들의 삶을 조금 엿보았다.

최재옥 회원

양단환봉상철기兩端環棒狀鐵器 단상斷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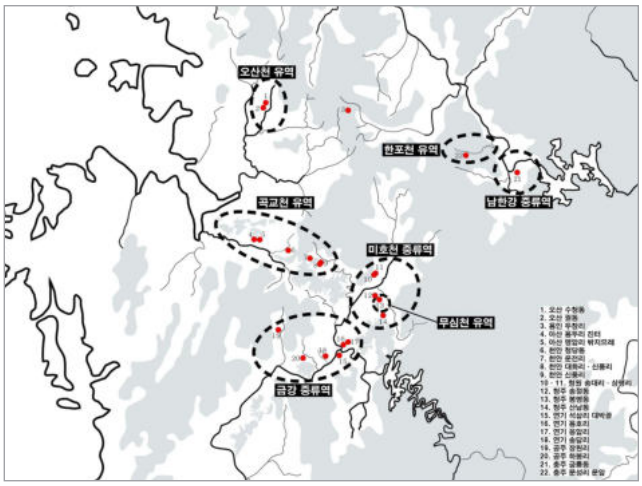
양단환봉상철기(상 : 청원 문암리유적 출토품, 하 : 청원 상평리유적 출토품)

양단환봉상철기兩端環棒狀鐵器는 길이 25㎝ 내외의 철봉 양 끝부분이 둥글게 말린 고리環 형태를 한 소형의 철기 유물이다. 199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천안 청당동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어 학계에 소개된 이래 유물의 용도와 실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용도미상 철제품' · '불명 철기'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현재까지 천안과 세종 · 아산 · 청원 · 청주 ·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 등 12개 유적에서 56점이 출토되었고, 원저단경호 · 심발형토기 · 철모 등이 공반되고 있다. 또한 이 철기는 유행시기와 분포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3~4세기대 금강과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마한세력의 문화적 성격과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마한의 토광묘문화권인 곡교천과 병천천 수계의 천안 · 아산지역과 미호천과 금강 수계인 청원 · 연기지역에서 10개소(46점, 82.1%), 이 지역으로부터 70여㎞나 동쪽으로 떨어진 남한강 중류역의 충주지역에서 2개소(10점, 17.9%)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마한의 토광묘문화권에 해당되며 특히, 연기 송담리유적과 석삼리 대박골유적, 천안 대화리 · 청담동분묘군,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유적 및 청원 송대리분묘군, 청주 금릉동 분묘군에서는 수십 기가 넘는 다양한 유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분포된 양상이나, 분묘간에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묘광의 장축방향이 대체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아 묘역을 인지할 만한 낮은 봉분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유적의 조영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다수의 분묘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양단환봉상철기는 전체 길이가 10.6㎝에서 27.2㎝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단조기술로 만들어진 철봉상의 신부는 너비가 0.6~1.3㎝ 내외로 단면이 방형 · 말각방형 · 원형을 띤다. 철봉을 둥글게 말아 양단

에 마련한 환부는 2.5~2.9㎝정도의 크기로 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철봉은 대부분이 직선을 이루며 신부에서 양쪽 끝의 환부 쪽으로 가면서 굵기가 점차 가늘어지고 둥근 고리모양을 이루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양단환봉상철기는 매장주체부 내에서 피장자의 신변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유물들과 부장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출토되는 것(A형)과 목관내 또는 목관 외부에 마련된 부장공간에 토기 등 공반유물들과 함께 출토된 것(B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목관 내부에서 다른 공반유물과 떨어져 독립된 상태로 부장되는 경우가 50.0%(28/56)이고, 목관 또는 목관내의 부장공간에서 토기 등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장되는 경우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부장공간에 따른 차별성이나 특이성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양단환봉상철기가 실용성이 결여된 위의구나 의례용구와는 공반하지 않고 단경호, 심발형토기 등과 같은 토기류 및 철부, 철모, 철촉 등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기종들과 공반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단환봉상철기는 마한인들이 사용한 실용품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유구내에서 복수로 짝을 이루며 모여서 부장된 것이 24점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양단환봉상철기의 구조와 기능적인 용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양단환봉상철기의 용도에 대하여서는 단면 방형에 길이 25㎝ 내외의 철봉 양단을 둥글게 구부린 단순한 형태를 고려하여 이를 재갈의 함銜이나 인수引手로 인식하였으나, 세부적인 구조와 기능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과 사진에 근거하여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단환봉상철기는 재갈의 함이나 인수로 보기에는 백제의 초기 재갈과도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설령, 재갈로 사용하더라도 기능상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지역 토광묘 유적 분포도

조영석, 〈편자박기〉

오키나와 민속구 '오모게オモゲ'

그럼 양단환봉상철기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마한지역의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는 56점에 달하는 양단환봉상철기의 정체와 기능적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지닌 구조적인 특징은 물론이고 유구내에서의 출토양상과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의 민속용구와 조선시대 풍속화 등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태상에 있어서 양단환봉상철기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은 직선상의 철봉부와 양단에 둥근 환부를 갖춘 간단한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양단부에 철봉을 둥글게 감아 매듭형태를 이룬 것은 이 부분이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특히, 다수의 유구에서 2개가 1조로 짝을 이루며 출토되는 현상도 주목되는 특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최근 보고된 동아시아의 민속자료 및 조선시대의 회화작품에 묘사된 마구를 착장한 말의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양단환봉상철기는 무엇보다도 말을 제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어구의 일종인 굴레面繫 · 頭絡의 부속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관련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의 안면 양쪽 구각부 외측에 밀착시켜 말의 얼굴을 감싸는 형태의 굴레로서 단면이 말각방형을 이룬 철봉에 둥글게 말린 양단부가 상하 대칭을 이루는 곡선상의 철제 구조물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천안 청당동유적이나 아산 명암리유적 등 아산만과 금강중류역의 분묘에서 출토된 양단환봉상철기와 구조가 동일하다.

또한, 조선 중기의 풍속화가인 조영석(1686~1761)이 그린 〈편자박기〉란 그림을 보면, 네 발을 끈으로 묶어 고목에 매어 둔 채 멍석위에 말을 눕혀 두고, 드러누운 말 발굽에 편자를 박는 노인과 옆에서 나뭇가지를 들어 애써 말을 달래는 젊은이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드러누운 말의 안면 양쪽 구각부 측면에는 둥근 고리가 표현된 직선상의 물체가 관찰되는데, 좌우측의 둥근 고리에는 2가닥의 끈이 마부가 끄는 고삐로 연결되도록 그려져 있다. 즉, 말의 안면부에 표현된 둥근 고리가 달린 직선상의 물체는 양단환봉상철기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말의 재갈이 아니라 굴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남큐슈와 오키나와沖繩 지역의 민속사례로서 30㎝ 내외 목봉의 상 · 하와 가운데에 2~3개의 구멍을 뚫고 이곳에 끈을 연결하여 말의 코부위를 좌우에서 결박하여 마부가 고삐를 당기면 말에게 일정한 고통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オモゲ' · 'ウムゲ' · 'ウムカ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가마쿠라시대의 『石山寺緣起繪圈』「大津の市」의 장면에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를 '협봉면계挾棒面繫'란 명칭으로 이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협봉면계는 고삐가 연결된 방향 어디서라도 마부가 고

삐를 당기면 좌우의 협봉이 쪼이며 말의 코 부위를 자극하게 되는데, 말은 이러한 상황이 마부의 의도라는 것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따라서, 말을 뒤에서 제어할 때에는 물론이고 앞에서 고삐를 당겨 말을 전진하도록 하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효과에 의해 협봉면계는 짐을 싣는 말駄馬이나 수레를 끄는 말輓馬을 이용하는 데 아주 우수한 장치이다. 또한, 재갈이 부착된 굴레는 말에게 불쾌감을 주며 물이나 사료의 섭취에도 장해가 되기 때문에 휴식시에는 굴레를 벗기고 재갈이 없는 무구두락無口頭絡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협봉면계는 말에게 착장한 대로라도 말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섬서성 북부지역에서는 현재에도 짐을 나르는 태마駄馬에 협봉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속용구로서 중국 사천 · 운남 · 내몽고지역과 태국 북부의 소수민족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가마쿠라시대 〈석산사연기회권〉의 말모습

봉면계 착용 모습(중국 섬서성, 2004년)

따라서, 충청지역 마한의 토광묘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양단환봉상철기의 기능은 민속용구와 중세의 회화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짐을 나르거나 수레를 끄는 말이나 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봉면계棒面繫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의 기록에 대하여, 우마를 장례나 제사에서 식용으로만 사용하고 군사나 농업에서 축력을 이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 그동안 학계의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三國志』의 기록은 소와 말이 대부분 짐이나 수레를 끄는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것임을 양단환봉상철기가 무언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주헌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신경철(부산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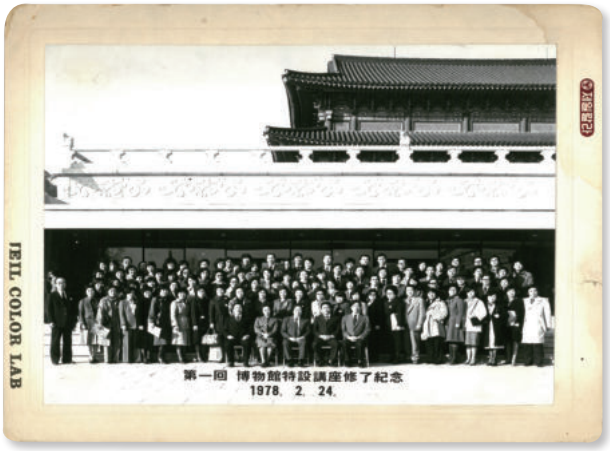
이 논문은 고고자료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출발한, 고고학 본래의 연구자세에 충실한 연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양단환봉상철기는 지금껏 '용도미상 철기', '이형 철기', '불명 철기', '봉상 철기' 등으로 불러온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 불명의 철기로 방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 철기가 충남 북부지역과 충북 서북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마한의 토광묘들에서 확인되는 점을 분명히 한 후, 민속용구와 중세의 회화자료들을 종횡으로 구사하여 이 철기를 짐을 나르거나 수레를 끄는 말이나 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봉면계와 관련되는 것임을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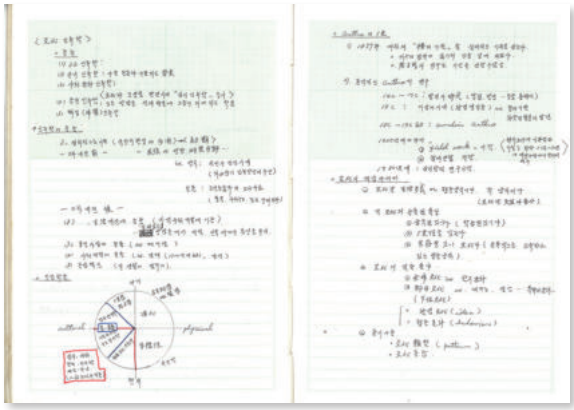
이 논고는 첫째, 삼국지 위서 동이전 마한조 기사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둘째, 마한에서는 4세기 초까지 기마습속이 없었다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다. 이는 이 시기의 마한-초기 백제 사회의 본질에 접근하는 귀중한 일보가 되기 때문이다.

박물관 특설강좌 40주년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설한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개설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에 기념행사와 함께 교육자료를 전시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설강좌 초창기 수료생 중, 전시 가능한 교육자료(노트, 사진자료, 강의자료, 답사자료 등)를
보관하고 있는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설강좌 1기 수료기념 사진


특설강좌 1기 수료생 노트(김송자)

특설강좌 1기 수료생 노트(김쾌정)

문의 02) 2077-9790~3

석류모양 주자, 청자실

佳作

절묘한 조화 기발한 착상
주전자가 석류 열매를 품었네.

탐스러운 엉덩이 디민 석류 아씨 셋
잎새 방석에 만개한 동무를 가마 태우니

돋을무늬 석류 구슬
가을을 노래하고

다산을 꿈꾸는 여인네 손길에
씨알이 톡 터지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信韓　金英那　南秀淨　朴殷寬　禹燦奎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鄭溶鎭
　　許榕秀　洪政旭　李榮勳
監　　事 | 金敎台　李敎祥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朴殷寬	㈜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에너지㈜ 부사장

금관회원

姜德壽	㈜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具在善	Actium Group LLC 부회장
曉　憬	회원
金承謙	서륭지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 사장
南秀淨	㈜썬앳푸드 사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尹在倫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李圭植	경신금속㈜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垞炅	MashupAngels 대표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한섬
趙顯相	효성 산업자재 PG장&전략본부 부사장
許允秀	㈜ALTO · ㈜ALTEK 부사장
洪錫肇	㈜BGF리테일 회장
洪政旭	㈜헤럴드 회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敎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南延	㈜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 회장
金寧明	㈜예올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鍾漢	㈜종합전기 대표
金芝延	㈜컨셉 대표
柳芳熙	㈜풍산주택 회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朴禎原	두산㈜ 사장
裵東眩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梁洪碩	대신증권㈜ 사장
禹燦奎	학고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李敎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崔杜準	㈜동남유화 부회장
崔正勳	대보건설㈜ 부사장
최철원	M&M㈜ 사장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許允烘	GS건설 전무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금비 사장
具東輝 ㈜LS 부장
具本權 ㈜LS 차장
具本商 LIG넥스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제련㈜ 전무
金建昊 ㈜삼양홀딩스 부장
金京姬 ㈜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예올 명예이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다우기술 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 부회장
金永珹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행남 대표이사
金侖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金益煥 한세실업㈜ 이사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正宙 ㈜NXC 대표이사
金宗學 서양화가
金兌炫 성신양회㈜ 사장
金澤辰 ㈜엔씨소프트 대표
金賢銓 히든베이호텔 사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부사장
柳重熙 ㈜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柳智勳 ㈜한탑 사장
朴璟鎭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善正 대선제분㈜ 전무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朴世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載相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朴正遠 재미교포
朴俊泳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海春
方正梧 TV조선 상무
徐東姙 회원
薛允碩 대한광통신 사장
孫元洛 ㈜경동홀딩스 상무
宋秉峻 ㈜게임빌 · ㈜컴투스 대표이사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楊仁集 ㈜진로 대표이사 사장
梁汰會 ㈜비상교육 대표이사
吳勝敏 동일산업㈜ 대표이사 사장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尹普鉉 호림박물관 이사
尹勝鉉 ㈜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李圭鎬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李起雄 열화당 대표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美淑 삼표산업
李常宰 ㈜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承勇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이사
李英純 한국미술협회 회원
李鈴子
李玉卿 서울옥션 대표
李容漆 ㈜경농 상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부사장
李宇鉉 OCI 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宰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李周成 세아제강 전무이사
李柱翰 ㈜삼익유니버스 이사
李濬宇 홍아해운 전무
李芝衡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고문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林鍾勳 한미IT㈜ 대표이사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張仁宇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洋賢財團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潤洙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在昊 대호물산㈜ 대표이사
鄭志伊 현대유엔아이 전무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曺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曺榮晙 우양산업개발㈜ 대표이사
曺在顯
趙希卿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陣在旭 하나유비에스 대표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崔世勳 ㈜카카오 CFO
崔雄善 ㈜인팩 대표이사
崔仁善 회원
崔再源 SK㈜ 부회장
崔惠玉 회원 · 자원봉사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咸泳俊 ㈜오뚜기 회장
許正錫 일진홀딩스㈜ 대표이사
許辰秀 SPC㈜ 부사장
玄明官
玄智皓 ㈜화승R&A 부회장
胡鍾一 호성흥업 회장
胡昌成 ㈜더벤처스 대표이사
洪範碩 남양유업㈜ 부장
洪碩杓 고려제강 상무
洪誠杓 고려상사㈜ 부회장
洪元福, 金根鎬 회원
洪正國 ㈜BGF리테일 전무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실장
洪振碩 남양유업㈜ 상무
黃仁奎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